■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첫 날 / 출근길 단속 해보니

"전날 마신 술이"… 숙취운전 9명 적발

6명은 면허취소 수준
자치경찰 도 전역대상
수시로 음주단속 계획

25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제주에서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9명 가운데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나와 면허가 취소됐으며, 나머지 3명은 0.03% 이상, 0.08% 이하로 측정돼 면허가 정지됐다.

이날부터 면허취소 수치는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 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또 처벌 상한도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같은날 서귀포시에서도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됐지만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숙취운전'도 적발 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1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이후 올해 6월 23일까지 106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반면 전년 같은 기간에는 2350건이 단속돼 45.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조천읍에서 제주시로 출·퇴근 하는 김모(34)씨는 "퇴근 후 자주 술을 마시긴 하지만 꼭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다"며 "이제는 출근길 아침에도 대리운전을 불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제주시민 고모(46)씨는 "숙취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단속되는 음주운전"이라며 "이 기회에 제주의 과도한 음주문화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야 상관 없이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송은범기자

주차장으로 변한 '환상 자전거길'

불법 주·정차 비일비재… 교통사고 위험 높여

제주시 애월해안도로에는 해안을 따라 '제주 환상 자전거 길'이 조성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해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곳을 지나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차도로 나와 주행을 해야돼 자칫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자전거를 타고 관광하던 장모(17·경기도)군은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제주에 오게 됐다"며 "그러나 환상 자전거 길을 따라 가다보니 주·정차 된 차를 피하느라 사고가 날 뻔 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자전거 길에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 환상 자전거 길'이 개통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인력·예산 부족 탓으로 돌리면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상 자전거 길은 총 사업비 약 358억원을 투입해 234㎞의 제주 해안과 일주도로를 잇는 사업이다.

특히 자전거 길 위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벌여놓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력 문제로 자전거 도로 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며 "해당 구간에 CCTV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경계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제주시 고내리 지역 경계석 설치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제주시 애월읍 나머지 구간, 구좌읍 지역도 설치 예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25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관광객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들어찬 환상 자전거길을 피해 차도로 달리고 있다. 김현석기자

이틀새 화재사고 잇따라

제주에서 이틀새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5일 오전 4시12분쯤 제주시 건입동 소재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우나 내 한증실이 소실되는 등 39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증실 천장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앞서 24일 오후 6시27분쯤에는 제주시 외도2동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오후 6시48분쯤 진화됐으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며 2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

경찰 "관계자 배임 의혹 혐의 없음"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삼도2동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김흥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된 이들은 모두 재밋섬 건물 매입에 관련된 인물로, 이재성 대표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동부서 관계자는 "재밋섬 매입 과정에서 어느정도 하자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손해를 끼쳐야 성립되는 형법상의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발견된 하자는 행정 내부의 처벌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송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월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가칭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 추진 명목 하에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추진했으나 계약금 2원, 해지위약금 20억원이라는 비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113억원에 이르는 재단 육성기금을 사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한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기록 검토 및 보강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공연장 등 부족한 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예술단체들의 아트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며 문예재단 육성기금 113억원을 들여 제주시 원도심 건물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주)재밋섬파크와 재밋섬 부동산을 106억73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독자제보 750-2225

절대보전지역 '대섬' 훼손 조경업자 구속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이모(66)씨와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만2000여㎡ 가운데 2만1550㎡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이던 중 대섬에서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와싱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한 것도 모자라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범기자

제주시정 소식

2019. 7.1일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대상여부 판단 기준표

(제주시 동 지역)

차종	사 례	차고지증명 대상여부(O, X) 현재	차고지증명 대상여부(O, X) 확대시	비고
대형	'07. 1. 31. 이전 최초 등록된 차량(전차종)을 중고차로 구입 또는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시행일('07. 2. 1)
	'07. 2. 1. 이후 대형 신차 구입	O	O	신차구입
	'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대형차량을 '19. 7. 1. 이후 동지역에서 중고차로 구입	O	O	명의이전
	'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대형차량을 가지고 '19. 7. 1 이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주소변경	O	O	주소변경
중형	'16. 12. 31. 이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중고차로 구입 또는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시행일('17. 1. 1)
	'17. 1. 1. 이후 중형 신차 구입	O	O	신차구입
	'1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동지역에서 중고차로 구입	O	O	명의이전
	'1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가지고 동지역으로 주소변경	O	O	주소변경
전기차	'19. 6. 30. 이전 최초 등록된 전기차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입하거나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전기차(중형이상) 시행 예정일('19. 7. 1)
	'19. 7. 1. 이후 등록된 전기차(중형이상) 차량을 신차 구입	X	O	신규등록
	'19. 7. 1. 이후 등록된 전기차(중형이상) 차량을 중고차 구입	X	O	〃
	'19. 7. 1. 이후 최초 등록된 전기차 차량을 가지고 동지역으로 주소변경	X	O	주소변경
소형·경형차	'22. 1. 1. 까지 유예함	X	X	

(제주시 읍·면 지역)

차종	사 례	차고지증명 대상여부(O, X) 현재	차고지증명 대상여부(O, X) 확대시	비고
대형	'07. 1. 31. 이전 최초 등록된 차량(전차종)을 중고차로 구입 또는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시행일('07. 2. 1)
	'07. 2. 1. 이후 등록된 대형 신차 구입	X	O	신차구입
	'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대형차량을 '19.7.10이후 읍·면지역에서 중고차로 구입	X	O	명의이전
	'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대형차량을 가지고 '19.7.1 이후 읍·면지역으로 주소변경	X	O	주소변경
중형	'16. 12. 31. 이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중고차로 구입 또는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시행일('17. 1. 1)
	'17. 1. 1. 이후 등록된 중형 신차 구입	X	O	신차구입
	'1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19. 7. 1. 이후 읍·면지역에서 중고차로 구입	X	O	명의이전
	'1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가지고 '19. 7. 1. 이후 읍·면지역으로 주소변경	X	O	주소변경
전기차	'19. 6. 30. 이전 최초 등록된 전기차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입하거나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전기차(중형이상) 시행 예정일('19. 7. 1)
	'19. 7. 1. 이후 등록된 전기차(중형이상) 차량을 신차 구입	X	O	신규등록
	'19. 7. 1. 이후 등록된 전기차(중형이상) 차량을 중고차 구입	X	O	〃
	'19. 7. 1. 이후 최초 등록된 전기차 차량을 가지고 읍·면지역으로 주소변경	X	O	주소변경
소형·경형차	'22. 1. 1. 까지 유예함	X	X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1~3234)

제주도정 소식

제주 도민 외국어 무료 온라인 수강 연중 실시
교육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등
문의: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710-7444)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행동수칙 알림

1.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3.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 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포함) 판매 불가
○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 불가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9. 7. 15.(월)까지
○ 공모내용
-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제주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 등

○ 응모방법 : 「제도개선 과제 제안서」 작성 제출
※서식파일은 도청 홈페이지 게시 (홈)도정뉴스)도정소식)새소식 란 참고)
·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방문 및 우편: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 팩 스: 064-710-4879 - 이메일: ljy8138@korea.kr

※ 2019.7.15.(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2019.7.15.(월) 우편소인분까지 인정함

고개숙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클리닉 ▶조루약물주입법
▶전립선클리닉 ▶남성회성기질환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